

피카소 작품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전 미 선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복식이란 인간의 내면적 욕구를 외적인 미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인간이 노출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 수단이자 한 시대 예술의 구성인자로 지각되며 경험되는 매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이란 회화, 미술, 공예 등의 조형예술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아래에서 탄생되며 상호 관련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대표적인 화가 피카소의 작품을 CAD시스템을 활용한 후 현대의상에 접목시켜, 개성 있는 디자인 창출의 모티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피카소 작품의 시대별 분석과 피카소 작품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대특성을 분석하고, CAD시스템의 Photo sho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능미와 회화미를 살릴 수 있는 실물의 상 8작품에 피카소의 회화를 디지털 프린터기법을 응용하여 예술적 회화성을 표현하였다. 아이템은 원피스, 투피스로 구성하였다.

피카소(picasso, pablo 1881~1973)는 1881년 10월 25일 에스파냐 말라가에서 출생하였고, 14세 때 바르셀로나로 이주하여 미술공부를 시작하였다. 이때 프랑스와 북유럽의 미술운동에서 많은 자극을 받고 특히 르누아르, 툴루즈 로트레크, 뭉크 등의 작품을 탐미하였다. 당시 그의 작품에는 고갱, 고흐 등의 영향도 많이 반영되었으나, 점차 청색이 주조를 이루는 청색시대(靑色時代)로 들어갔으며, 테마는 하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참상과 고독감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904년 여인 페르낭도 올리비에와의 만남으로 색조가 청색에서 장미빛으로 바뀌고 과거의 에스파냐예술, 카탈루냐지방의 중세조각, 그레코, 고야 등이 지닌 독특한 단순화와 엄격성이 가미된다.

피카소의 작품세계는 감상의 시기(1902~1906)와 창조의 시기(1907년 이후)로 세분되며, 감상의 시기에 포함되는 청색시대(1901~1905)와 장미빛시대(1905~1906)는 주제의 내용과 정신적 구상이 우세하고, 창조의 시기에 포함되는 큐비즘시대(1907~1914), 추상과 고전의 시대(1915~1925), 초현실주의 시대(1925년)는 입체감 표현, 구성과 형식, 방법과 실행의 문제 등 형식을 창조하는 요소들이 우세하다.

피카소의 시대별 작품세계 중 청색시대(1901~1904)는 피카소 그림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 받는 시기로 생활과 삶의 잔인한 고통과 죽마고우 카사게마르의 죽음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된다. 1901~4년까지 계속된 청색시대의 명칭은 피카소가 차가운 인디고와 코발트 블루를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두번째인 장미빛 시대(1904~1906)에는 여인 페르낭

드 올리비에와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며 자신감 넘치는 시대이다. 청색 시대와 같이 피에로, 무희, 곡예사, 점쟁이들을 그렸지만 청색시대의 인물은 어둡게, 장미빛 시대 인물은 밝게 묘사되었다. 세번째 입체주의의 시작인 1907년에 피카소는 추상적인 아프리카 가면의 힙찬 표현을 발견하고 그 모티브를 자신의 그림에 표현하였다. 또한 세기의 작품 <아비뇰의 창녀들, 1907>을 그려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네번째는 입체주의(큐비즘 시대)로 20세기 미술계의 중요한 입체주의 미술 운동(1908~1914)으로 이 용어는 마티스가 조르주 브라크의 입체주의적인 풍경화를 보고 "이것은 작은 입방체일 뿐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본 연구의 작품제작의도 및 방법은 피카소작품의 장미빛 시대인 1904~1906년대의 작품과 화려한 색감이 살아있는 피카소 특유의 중·말년 작품(1923~1973)을 디자인에 도입, 응용하여 현대 복식 디자인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피카소 작품을 직물에 디지털 프린트하고 가죽과 패취 하여 피카소 본연의 작품을 더욱 강조하였다. 전체적 구성은 원피스 또는 투피스로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Concept Theme는 The Rose Period로 사랑과 열정이 풍부한 Red 와 같이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던스타일과 여성의 섹시함을 부각시켰다. Silhouette은 Femininity itself로 부드러움과 관능미로 여성미를 강조했으며, Target은 Main Target으로 25 Age 35 Age를 Sub Target으로는 35Age이후의 젊고 자신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미시로 선정했다. Color는 Main Color로 Black, Khaki를 Sub Color로 Blue, Pink, Orange, Red를 사용했으며 Fabric은 Main Fabric로 Wool, Silk, Velvet을 Sub Fabric로 Leather, Fur, Lace, Poly urethane, Micro Polyester 100%, Chiffon을 사용했다. Finishing은 방추가공 후 Digital print, Patchwork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20세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한 대표적인 화가 피카소의 작품을 CAD와 함께 현대복식에 접목시켜, 개성 있는 디자인 창출의 모티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카소 작품 중 장미빛 시대와 중, 말년시대의 작품을 현대복식에 접목시킨 결과 현대감각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미를 발현할 수 있었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작품의 제작에는 CAD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프린트, 주름가공 등, 입체표현에 있어 조형미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한 화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복식의 창의적인 작품 및 조형의지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